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4회)

전도관 제6편

이만제단 시대 제3부

4) 감람나무 원체인 영모님은 잃었던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으시는데 이중 아담이긴자가 완성자 구세주로 출현하신다

박태선 영모님의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찾아 키우는 사명을 이루는 역사라고 앞에서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박태선 영모님은 150만명이나 되는 전도관 식구들을 거느리며 큰 잔치판을 벌이게 된다. 이와같은 큰 잔치판을 벌이시는 박태선님은 '엄마' 소리를 들으며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오직 두 가지를 찾아 키우시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영모님의 광야에서 외치시는 소리의 실체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이다.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조상인데 원래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였던 것이다. 다음 영모님의 말씀을 소개하겠다.

“삼수의 원리가 하나님 아담 해와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가 똑같은 것은 셋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던 것이다. 어디도 틀린 것이 없었다. 머리카락도 같은 것이다.” (82.3.8.신상신보)

이와 같이 감람나무 원체로 출현하신 첫번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두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곧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의 역사인 것이다.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의 역사는 곧 세 분 하나님의 출현을 의미한다.

또 세 분 하나님의 출현은 완성된 구세주의 출현을 의미한다. 다만 세 분의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되시어 출현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묵 3:21)

하나의 하나님 보좌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앉으신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것이다. 보좌(寶座)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좌가 아니고 영적인 보좌인 것이다. 영적인 보좌라면 어떤 보좌를 말하는가?

백보좌의 심판(白寶座審判)이란 말이 있다.(묵20:11, 聖運論) 보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의자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각종 경전이나 예언서의 보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자를 말한다. 영적인 보좌란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에게 일체로 합일되어 완성된 구세주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첫번째 하나님 박태선 영모님이 두번째 하나님인 해와이긴자에게로 합일되어 2인일체가 되고 2인일체가 된 몸이 다시 아담하나님에게로 합일되어 3인1체를 이루시니 곧 3위1체로 완성이 되는데(묵3:21) 이와같이 되시어 한 분으로 출현하신 분이 곧 우리가 고대하는 구세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시는 분의 몸은 세 분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보좌가 되는 것이다.

이 분 보좌가 되시는 구세주는 금운(金運)으로 오시게 되는데 금운의 색깔은 백색(白色)이기 때문에 금운으로 오신 구세주를 백보좌(白寶座)(성운론) 또는 흰 보좌(寶座)(묵20:11)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바로 이 금운으로 오시는 아담 이긴자가 인류의 고대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3. 누가 아담이긴자 구세주이신가?

이와같이 한 감람나무가 두 가지들, 즉 감람나무 원체되시는 영모님은 먼저 해와를 찾으시고 다음으로 아담을 찾으시는데, 그 두 가지(해와와 아담)중에서 아담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처음 사람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다 하였으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신이 되었다”(고전15:45)

이 성경구절은 '처음 사람 아담 즉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진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고 둘째로 회복되어 나타나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신이 되었다'고 한 것이다. 두번째로 나타나는 둘째 아담은 온 인류를 살려주시는 신(神)인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 인류의 구세주라면 그 인류의 구세주는 누가 되는 것인가? 이 해답을 얻으려면 해와하나님과 아담하나님을 찾아 키워 세우신 영적 엄마가 되시고 감람나무 원체되시는 박태선영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영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쁨의 보따리를 선사하겠다. 소사에서 그때 두달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굉장히 쉐츄이야. 실력과 능력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오는 맨피리를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내 가치를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조희성이 그제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자기가 미래에 계획한 것을 가르치는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문선명보다 굉장히 쉐츄 것을 한다 이거야.”

이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은 설교 말

씀을 녹음한 것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그때 소사에서 두달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굉장히 쉐츄이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때 소사에서(소사 밀실) 아담과 해와인 두 의인(두 달만에)이 출현했다면 굉장히 쉐츄이야”라는 뜻이다. 좀 더 보충설명을 하면 그때 소사 밀실에서 두 의인이 출현하였음을 가리켜 증거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의인을 키운 영모님은 그 두 의인 중에서도 마지막 의인으로 출현한 아담을 맨 피리라고 하면서 “실력과 능력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오는 맨 피리인 아담이긴자를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영모님의 가치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피리가지가 조희성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신 것이다. “조희성이 그제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라고 하시면서 조희성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이 아닌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를 하시는 구세주의 임임을 강력하게 증거하신 것이다. 위의 말씀은 감람나무 원체가 되시는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이니 더 이상 의미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하게 조희성님이 구세주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시면서 구세주 출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상상할 수도 없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구세주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다. 계속 주시하면서 읽어 주시기 바란다.

1) 격암유록 속의 감람나무

이제 독자 여러분들은 감람나무는 구세주요 정도령(正道令)이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에 보면 역시 감람나무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 다만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고 감 시(柸)자를 써서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남사고 선생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몇가지만 소개하고 끝맺겠다.

가) 柸木扶人 皆之柸木之林
시목부인 개지서목지림

.....世論時(세론시)

“감람나무를 따르는 자 모두 감람나무 숲을 이룬다.”

나) 天地合運出柸木 弓乙兩白十勝出
천지합운출시목 궁을양백십승출

.....鷄龍論(계룡론)

“천지의 운이 합하여 감람나무로 나오시니 궁을양백인 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하신다.”

다) 天授大命 似人不少人 柸似真人
천수대명 사인불인사진인

.....養41장(새41장)

“그분은 하늘의 큰 사명을 맡은 분인데 사람같으나 사람이 아닌 감람나무같은 사람이다.”

라) 柸謀者生 衆謀者死
시모자생 중모자사

.....末運論(말운론)

“감람나무로 도모하는 자는 살 것이요, 세상무리들과 도모하는 자는 죽으리라”

2) 기습아픈 감람(檄欖)나무의 수난(受難)

우리는 마지막 아담(고전15:45)인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조희성님의 7년 옥고를 잊을 수가 없다. (1994- 2000)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러나 조희성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수난이라고 말씀하신다. 조희성님의 7년 옥고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고난이었으며 또한 이 기가 막힌 7년 옥중고난은 성경상의 7년 대환란을 치르신 것으로서 조희성님이 인류를 위하여 몸소 치르신 역사적인 수난이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 밀실에서의 연단시에도 조희성님은 그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몸소 치르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마겟돈전쟁 및 7년대환란을 인류의 구세주 조희성님이 몸소 치르시게 된 것이다.

참고 삼아 이사야 선지의 성경구절을 적어보겠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같고도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 개가 남음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사 17:6)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고요”(사 24:13)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몸소 7년대환란을 치르고 계실 때 당시의 자식들은 무수히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승리하신 하나님인 구세주 조희성님은 기가 막힌 옥중 7년대환란을 치르시면서도 당시의 자식들을 영적으로 지켜주시어 상당수의 당시의 영적 자식들이 살아 남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큰 7년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구세주의 자식들은 앞으로 승리대장의 후군이 되어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는 승리대장의 잘 조련된 승리의 용사들이 될 것이다.*



道隱無名

도은무명

도는 감추어져 이름이 없는 것이다

도덕경 41장 해설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생각이다. 생각의 힘이 오늘날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는 곧, 어떠한 세상을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도를 닦

아 어느 한 차원에 이른 도인과 도와 거리가 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행복관 등은 분명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격이 클 것이다. 그 까닭은 마치 도와 거리가 먼 사람은 안개 자욱한 상태에서 사물의 실체를 관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아 모호하고, 도인은 청명한 날에 확연히 사물의 실체를 관찰하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와 노자가 말하는 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 생각의 크기와 폭과 힘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다룬 내용 중에 흔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강하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도인은 부드럽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강하고 높아지는 것은

쉽게 부러지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고, 부드럽고 낮아지는 것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오래오래 그 존재성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인과 무도인의 생각하는 차원과 관점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본질을 알아야 인간의 생각하는 힘을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다.

도덕경 첫 장에 '도가비상도(道可道非常道)'를 다시 한번 상기해 풀어 보면, 도를 도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항상 상하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란 그 내용과 41장의 아래 내용과 상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데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도의 정의와 개념이 잘못되었다. 이는 마치 진리(真理)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알고 있는 것으로 속내용물은 모르 채 포장된 겉모습만 보고서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바로 제대로 된 도와 덕을 지닌 사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피상적인 생각과 모습, 그리고 실제의 생각과 모습은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 장의 내용을 더듬어 보면 보다 그 뜻이 심원하고 웅대함이 확연히 알아채질 것이다.

故建言有之(고건언유지): 고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말씀이 있는데

明道若昧(명도약매):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進道若退(진도약퇴): 앞선 도는 뒤쳐진 것 같고

夷道若類(이도약유): 평평한 도는 흠집이 난 것 같고

上德若谷(상덕약곡): 최상의 덕은 골짜기 같고

大白若辱(대백약욕): 크게 순수한 것은 욕된 것 같고

廣德若下(광덕약하족):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고

建德若偷(건덕약투): 당당한 덕은 교활한 것 같고

質真若渝(질진약유): 바탕이 참되면 변한 것 같고

大方無隅(대방무우): 크게 모나면 모서리가 없는 것 같고

大器晚成(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뤄지는 것 같고

大音希聲(대음희성): 큰 소리는 소리가 희박하다

大像無形(대상무형): 큰 상은 형상이 없다

道隱無名(도은무명): 도는 감추어져 이름이 없는 것이다

夫唯道 善始且成(부유도 선시차성): 그러므로 오직 도는 선(덕행德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또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도란 보고 듣고 책상머리 앞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선행(도덕)을 기반으로 한 행이 수반될 때,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도가 완성되어야 인간의 제반 문제와 불행이 사라져 항상 즐겁고 상쾌한 정신적, 육체적 열락을 누리다. 이것이 도덕경의 골자인 것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